

‘아빠 육아휴직’ 40% 코앞… 내달부턴 ‘단기 육아휴직’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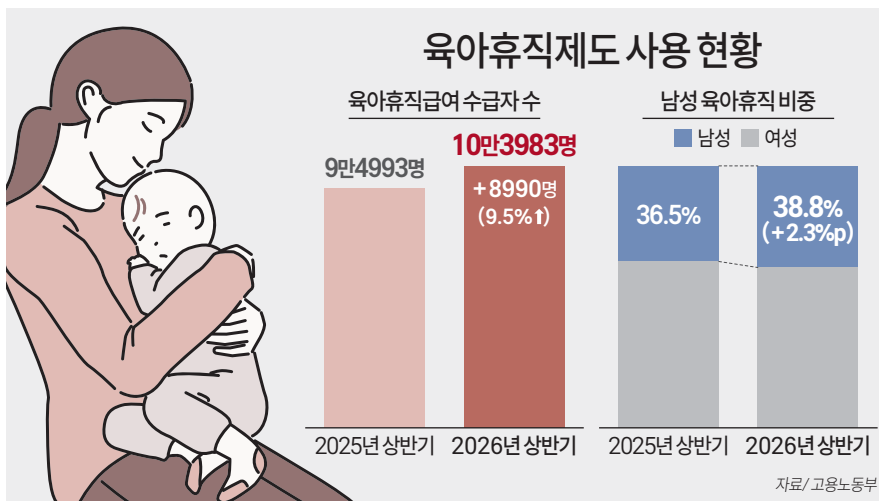
고용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상반기에만 근로자 20만명 활용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0.3만명

오는 9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1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일하는 부모들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 선 턱밑까지 차오르며 ‘아빠 육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



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9만9911명으로 2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34만2388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육아휴직의 가파

른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 동기(9만4993명) 대비 9.5%나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36.5%를 거쳐 올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 지원 강화와 현장 여건 개선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며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 대비 1.5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굵직한 제도 개편을 이어간다. 당장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 갑작스러운 공백 시기에 연 1회, 1~

2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를 신설하고,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부발전, AI로 똑똑한 ESS·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포화지역 ESS 구축
잉여 전력 저장·공급 스마트 전력망
AI 활용 중부발전 VPP 플랫폼 도입

한국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능형 전력망 체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본격 나선다.

중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계통포화지역 ESS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서 관할 배전선로 1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발생하는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특히 중부발전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의 재무적 협력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설비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중부발전은 선정된 배전선로에 첨단 ESS 설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저장하



한국중부발전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2026년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ESS 설비 사업의 예상 조감도. /중부발전

고, 전력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스마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망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AI 활용 중부발전 VPP(가상발전소)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물리적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설비를 설치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융합한 ESS 운영으로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해 가상발전소 시장의 선도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배전선

로 대상 ESS 구축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돕고, 지역 전력망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ESS 등 첨단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계통 포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ESS 확대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사,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확보

(주)동방 현지 자회사 동바비나 ‘맛손’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이어 다섯 번째

부산항만공사(BPA)가 또 하나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에 성공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 다섯 번째 해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12일 BPA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하이퐁 물류센터 운영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주)동방의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동바비나와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확보 전략’에 따라 유망 국가인 베트남에 물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이퐁항 배후 ‘Deep C 산업단지’ 내 부지 1만7183㎡에 연면적 1만31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럽·동남아·북미·아세안을 잇는 해외 물류 연결망의 한 축을 추가로 갖추게 됐다. 앞서 202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2024년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미국로스앤젤레스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물류센터는 올해 9월 건축 인허가를 거쳐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 개장 후 2056년까지 약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센터가 자리하게 될 하이퐁 Deep C 산업단지는 베트남 북부 최대 산업단지다. 약 160개의 세계적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우리 기업 중에는 LG전자 등 26개 전자·제조업체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최대 항만인 하이퐁항과 락후옌 심수항으로부터 약 15km 거리에 있다. 또 하노이 및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연계도 뛰어나 물류센터 운영의 최적 입지로 꼽힌다.

공사는 이번 하이퐁 물류센터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회주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부산항의 국제 물류 연결망을 한층 두텁게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폐기물 매립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달 영상기록장치 도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매립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장비를 도입한다. 이 같은 안전 장치를 하역·유도 등 사고 위험 작업군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혁신하고 산업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영상기록장치(바디캠)를 이달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의 이번 바디캠 도입은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과 하역 중장비가 동시에 작업하는 매립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작업 구간과 상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 환경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수원-한화오션, 1GW급 ‘영광 칠해 해상풍력’ 추진

2029년 착공, 2032년 상업운전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화오션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12일 한수원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를 체결했다.

전남 영광군 해상에 들어설 ‘영광 칠해 해상풍력’은 총 설비용량 1020메가와트(MW) 규모 대형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1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오는 2029년 9월 착공해 2032년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한수원과 한화오션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역량과 한화오션의 해양플랜트·해상구조물 전문성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오션은 특유의 해상구조물 제작 및 해양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한수원은 그간 축적된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사업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으로 영광 칠해 해상풍력 관련 사업개발 및 인허가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풍력 분야의 국내 공급망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일 한수원 재생수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준·착공 10.5GW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